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여당당

여성NEWS

여성이 바로 서야 고성이 산다

여당당.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



“요리는 제 인생의 또 하나의 행복”

고성군여성회관 요리 전문강사 안경실씨

“요리는 제 인생의 또 하나의 행복이에요.”

요리에 관한 연구와 열정으로 고성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요리 전문가가 있어 화제다.

고성군여성회관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안경실 강사(46세)를 만났다.

크지도 않은 키에 애먼 얼굴,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요리에 대한 애착은 가히 존경스러울 정도다.

안씨는 인천 서구 당하동 출신으로, 지난 2006년 인천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고성군으로 전근한 남편과 함께 고성군에 정착했다. 현재 죽왕면 파출소 1팀장으로 재직중인 성락기 경위가 그의 남편이다.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안씨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IMF가 오면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그 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우게 것이 인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2년동안 요리를 배우며 인정을 받은 그는 보다 전문적으로 배워야한다는 생각에 35세때 대학에서 호텔조리학과를 전공하게 됐다.

어떤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인 그녀는 학업에서도 열정이 남달라 대학생활 내내 우수장학생이었다.

대학 졸업후에 인천의 여성회관 및 복지회관, 요리학원 등에서 강의를 했다.

안씨는 고성으로 이주한 뒤에도 2년 동안 요리강의 때문에 인천을 오가며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고성군여성회관에서 요리를 강의하고 있는 안씨는 끝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초청받아 요리 특강을 하고 있다.

안 씨는 지난해 평창에서 열린 제14회 감자요리축제 대회 2인1조 부문에서 은상

을 수상했으며, 춘천 요리경영대회에서 쌀부문 떡요리에서 개인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총영사관 및 한국조리기능인협회가 주관한 한인홍콩요리경영대회에서 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음식박람회에서는 쌀요리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상했으며, 올해 4월에는 한국관광음식협회에서 주관한 한국관광음식엑스포 발효음식 민속주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성에 정착을 한 그는 “이제는 고성사람이 다 됐다”며 “공기가 맑고 사람들이 정이 많아 이곳 생활에 만족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술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무료강좌를 개설해 요리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

보육시설 원아 흡연·장애예방 교육

고성군보건소 2~13일...보육시설 원아 598명 대상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고성지역 국공립 및 사립 보육시설 원아 598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원아 흡연 및 장애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흡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확보해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소 금연관련 관계자 및 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 시각장애인협회 고성군지부를 비롯해 사업담당자 등 각 기관의 전문 강사로 구성되어 실시한다.

아울러 흡연·장애예방 교육, 장애놀이체험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며 교육자료를 배부한다.

흡연교육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위한 금연리플렛 및 소책자를 지급한다. 흡연의 영향, 담배를 피우는 이유, 담배 멀리할 수 있어요,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 금연 스트레스 따라하기 등을 담고 있다.

또 장애예방체험 교육은 점자책 알기, 수화배우기와 의사전달, 인사하기, 식사예절, 장애놀이 체험 눈 가리 사탕, 과자먹기 게임 등이 진행된다.

한편 고성군보건소는 이동금연을 리니사업 및 교육자료 배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을 홍보해 보건사업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승근 기자

여성단체 탐방 ③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로 봉사”

자충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로 범죄를 예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회장 김영희)은 51명의 회원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지역 노인전문요양원 목욕봉사를 펼치고 있다.

또 새해 해맞이행사 급수봉사, 고성의 대표적 축제인 바다축제 행사에 급수 봉사, 초도리 성계축제에 참가해 커피 등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수욕장을 찾아 해변가 쓰레기 줍기 정화활동, 지체장애인 외출동행 및 차량 도우미 봉사, 장애인보호작업장 음식도우미 봉사 등도 실천하고 있다.

포순이 봉사단은 각종 성금마련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인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물품지원 불우이웃 돕기 행사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발적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에 많은 회원이 참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김영희 회장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우리 회원 모두는 지역의 발전과 고성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노력할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영희 포순이봉사단 회장